



기도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39절, 누가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5~15절, 누가복음 11장 1~13절

예수님께서서는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새벽에 일어나 ¹⁾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실 때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²⁾여쭙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한 말을 자주 되풀이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¹⁾한적한 곳: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곳.

²⁾여쭙다: 웃 어른에게 말을 하거나 묻는 것.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35)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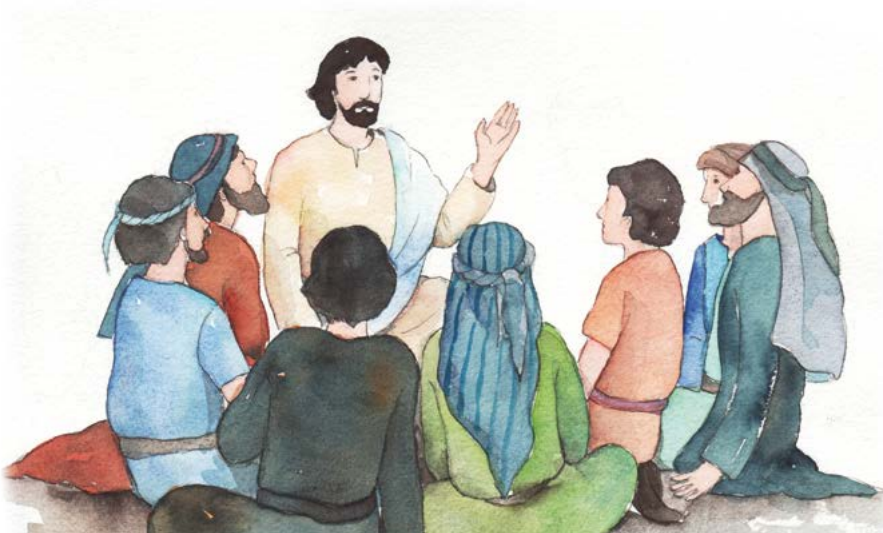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사람의 ¹⁾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지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¹⁾과실: 실수로 잘못된 것.



오늘의 공부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언제 기도하셨나요? 말씀을 찾아 읽고 알맞은 그림과 연결해 보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6:12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35



하나님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22:41~44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며 올바른 기도에는 '○'표, 그렇지 않은 것에 'X'표 하세요.

- ①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 ()
- ② 한 말을 되풀이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 ()
- ③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도 ()
- ④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기도 ()
- 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하기를 구하는 기도 ()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7)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비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¹⁾낙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1~8 말씀을 읽고 다음 그림의 말풍선에 알맞은 말을 적어 보세요.

¹⁾낙망: 희망을 잃음.

불의한 재판관



과부 :

불의한 재판관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 예수님께서서는 한적한 곳에서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요.

1. 기도 장소 꾸미기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예쁘게 꾸며 보세요 (기도방석, 기도의자 등등)



2. 기도 제목을 써서 붙이기

기도 제목을 종이에 적어서 붙입니다.



3. 기도할 시간 정해서 기도하기

기도할 시간을 정해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해요.



4. 하나님께서 들어 주신 기도 제목에 '○' 표 하세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와 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6)



예 화

* 왕의 호의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지

어떤 왕이 신하들이 식사 때마다 감사기도를 드리지 않자 그들을 교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거지 한 사람을 자기 식탁에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분수에 넘치는 식사를 마음껏 먹고 나서는 왕의 친절과 호의에 대해 한마디 감사의 인사도 없이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신하들은 거지가 은혜를 너무 모르는데 대하여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져 거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신하들에게 엄숙히 말했습니다.

“그대들도 이 거지와 똑같소. 그대들도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있지 않소!”

왕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